

賀 辭

畏友 田鳳德 博士가 古稀를 맞게 되었다. 인간의 平均壽命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나 人生 七十이 古來稀인 것만은 아직도 엄연한 事實이어서 그가 古稀를 健康하게 맞이하는 것은 祝賀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

田博士는 나와 大學의 同門인데 1934년에 京城帝國大學 豫科에 같이 入學했다. 田博士는 일찌기 京城師範學校를 卒業하고 얼마 동안 教鞭을 잡다가 다시 發憤立志하여 大學에 들어왔는데, 본래 頭腦가 明哲하여 豫科時節부터 大學本科를 卒業할 때까지 拔群의 成績으로 늘 首席을 차지하였으며, 大學在學中에 日本國의 高等文官試驗의 行政科와 司法科의 兩科에 대단히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되어 世上을 놀라게 한 秀才이다.

그는 大學豫科에 다닐 때부터 工夫하는 學生이라기보다는 이미 研究하는 學者였다. 다른 學友들이 겨우 教養書籍이나 읽을 때에 田博士는 이미 專門的인 學問을 깊이 파고들어갔으며, 특히 韓國法制史에 깊은 研鑽을 쌓았다. 그는 豫科時節부터 六堂 崔南善 先生의 門下에 出入하여 그분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일찍부터 田博士가 많은 關心을 가진 것은 朝鮮王朝時代의 暗行御史制度였다. 많은 腐敗의 要素를 가지고 있는 朝鮮官僚社會가 그때로 500년이나 계속해 내려온 것은 그 나름대로의 腐敗防止의 裝置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暗行御史制度도 그 하나인 것이 틀림없다. 田博士가 學生時節부터 暗行御史制度에 큰 關心을 가진 것은 비록 日本植民統治下에 있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韓國民族의 苦痛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方案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의 愛族心의 一端의 發露였다고 여겨진다.

그는 이미 豫科學生時節에 日本의 유명한 新聞인 朝日新聞의 學術懸賞

論文募集에서 그의 「韓國文化的 將來」라는 論文이 當選되어 同新聞에 실려 學界의 놀라움을 일으키고 韓國人 學生의 優秀性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는 大學本科를 마치고 宦途로 나가 그가 할 수 있는 最善을 다하여 우리 民族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알려진 일이고, 解放當時는 日本人에게서 韓國人에게 政權을 平和의으로 移讓시키는 問題로 一時 總督府를 움직이고 古下 宋鎮禹 先生을 만난 것도 잘 알려진 事實이다.

나는 田博士는 解放後에 學界로 들어와 그가 學生時節부터 情熱을 쏟았던 韓國法制史研究에 全力을 다할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解放直後의 混亂과 行政의 空白을 메우는 데는 田博士와 같은 有能한 人士가 絶對的으로 必要하였으므로 爲政者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대로 行政部署에 머물러 있지않을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學生時節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愛民의 經綸을 펴기 위해 그는 行政實務에 從事하기는 하였지만 學問研究에 대한 情熱도 또한 저버리지 않고 바쁜 틈을 타서 韓國法制史研究를 계속하였고 또 大學에도 出講하여 오늘의 韓國法制史學의 土臺를 이루어 놓았다. 그의 畢生의 課題인 暗行御史에 관한 것을 비롯한 「韓國法制史研究」는 그에게 法學博士學位를 가져다 주었으며 學術院著作賞의 候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冊은 日本에서 翻譯되어 그 學問的 價値가 國內外的으로 대단히 높게 評價되고 있다.

그는 在野法曹人으로서 人權擁護와 社會正義實現에 全力을 쏟고 있는 同時에 學者로서 많은 業績을 남기었다. 한 사람이 實務에 從事하면서 學問的 研究를 繼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田博士는 이 兩立하기 어려운 일을 거뜬히 해내어 우리 나라의 가장 훌륭한 法律實務家이면서 또 뛰어난 法律學者가 되었다. 그는 近者에도 새로 「韓國近代法思想史」의 力著를 펴내고 있다.

老益壯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의 精力의 學究를 親舊의 한사람으로 기뻐하며, 특히 그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不毛의 땅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想像되는 韓國法史學에 그가 끼친 功績은 千古에 남을 것이다. 그의 古稀를 당하여 韓國法制史學界의 大家들의 論文集을 만들어 그를 祝賀하는 것은 그의 이 分野에 있어서의 功勞로 보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古稀라고 하지만 田博士는 아직도 元氣가 旺盛하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研究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確信하면서 그의 萬壽無疆을 빌면서 賀辭에 대신한다.

1981年 5月 15日

李 恒 寧